

복잡한 데이터 관리를 쉽고 빠르게! 엔드-투-엔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펜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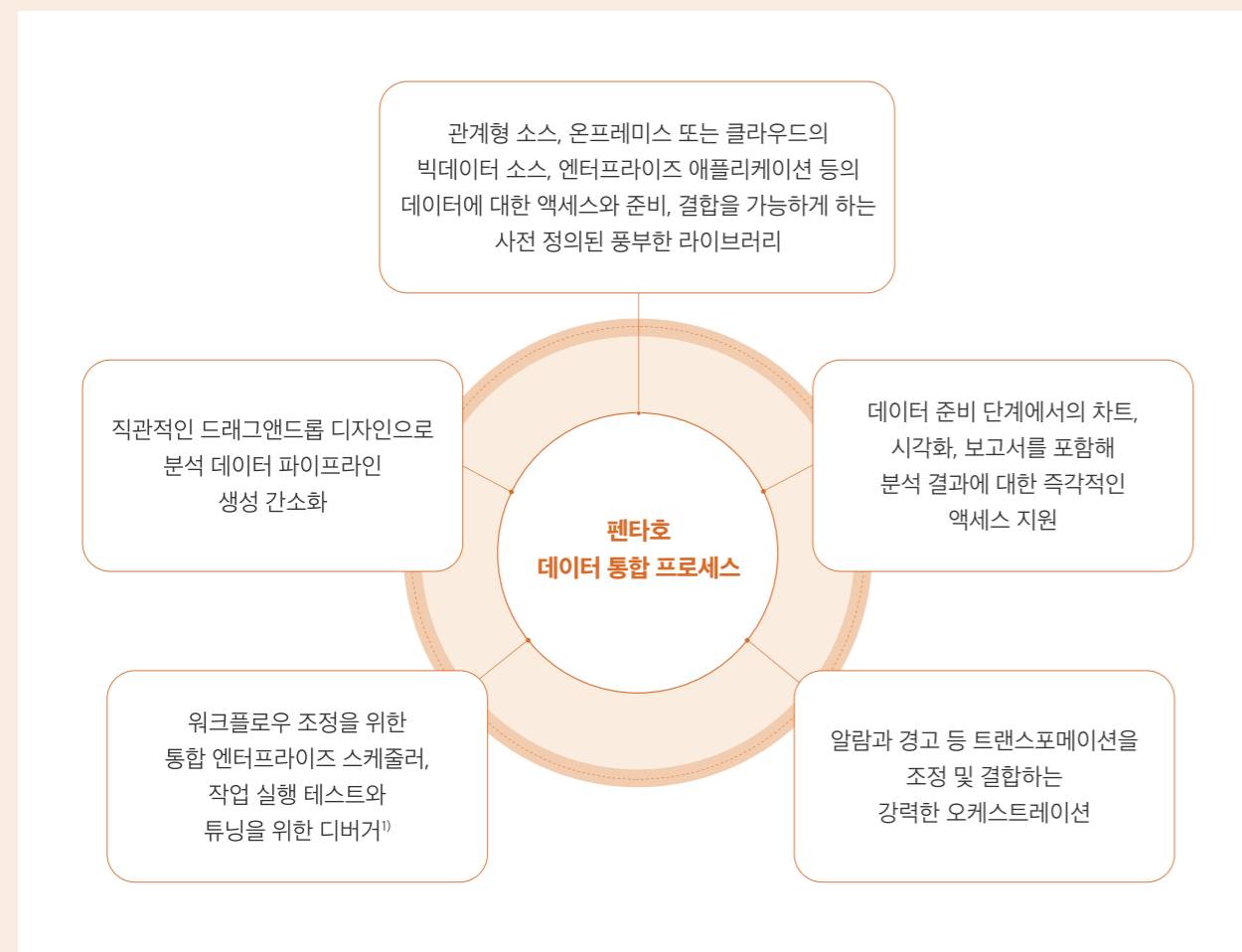
기업들이 당면한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로딩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다양한 포맷으로 변화하는 데이터 소스를 관리하고, 반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규모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이 모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제어하면서 거버넌스도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수많은 IT 리소스, 타이트한 프로젝트 마감 시한, 반복적인 수작업 설계, 시간 소모가 큰 개발 과정,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 등 어려움이 많다.



빅데이터 통합 분석 솔루션

펜타호는 방대한 데이터 관리를 단순화하는 솔루션이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함으로써 비즈니스 사용자가 신속하게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간과 복잡성을 줄인 시각화 툴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바 또는 파이썬으로 SQL을 작성하거나 코딩할 필요가 없어 더욱더 빠른 분석이 가능하다. 기업은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에 존재하는 데이터, 파일 등의 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둡 등에서 즉각적으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한 광범위한 연계와 고성능 스파크 및 맵리듀스 실행이 가능한 펜타호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가속한다. 펜타호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1) 디버거(debugger): 트랜스포메이션의 튜닝 및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디버깅

펜타호를 통한 데이터 통합은 성능을 높이고 빅데이터 소스 통합에 따른 복잡성을 줄여준다. 기업들은 현재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펜타호를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통찰력과 성과를 원한다면

데이터 중심 기업이라면, 혁신과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액세스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펜타호'를 중심으로 대용량 데이터 저장을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레이크 관리, 에지 인텔리전스 등과 각 솔루션을 하나의 포털처럼 운영할 수 있는 루마다 데이터옵스 스위트 등 강력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기업은 데이터를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원한다. 루마다는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셀프 서비스 데이터 검색, 준비 및 액세스를 제공하는 등 IT 조직을 위해 적절한 거버넌스 제어와 비즈니스 통찰력을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플랫폼이다.

*출처: Modernizing Data Pipelines, www.hitachivantara.com, 2022년 10월